

2016년 봄학기 공과대학 주관
일본 동경대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

활동보고서



제출일: 2016년 8월 2일

소속: 공과대학 건축공학전공

학번: 2012-11818

이름: 장휴산

1. 학교생활

-3월-

실질적인 교환학생 프로그램 시작은 4월이지만 출국하기 전 여러 서류작성 등 준비 할 것이 몇 가지 있어서 2015년 9월부터 3월까지 간단하게 설명을 하려고 한다. 우선 공과대학에서 선발이 되면 동경대학교 공과대학 교환학생 프로그램 사이트(T-cens)를 통해 동경대 대외협력실과 연락을 하며 필요한 서류를 세 달에 걸쳐 파일 업로드를 한다(교수 추천서, 증명사진 등). 상대 대학교의 지도교수를 선택하여 “ACCEPT”를 받으면 그 연구실 소속 학생으로부터 튜터를 배정 받고 연락을 주고받는다. 나는 동경대학 대학원공학계연구과 건축전공 아카시 야수노리 (赤司 泰義) 교수님이 지도 교수로 선정되고 그 연구실 소속인 학사 과정 1학년 이지은 씨가 튜터로 배정되었다. 동경대학교 건축계 연구실에는 한명씩 한국 유학생이 있었던 것 같다.

-4월-



Figure 1. 야스다 강당 정면



Figure 2. 공과대학 제1호관

일본은 학기가 4월 달부터 시작하고 기숙사 입사기간이 4월 첫 주였기 때문에 나는 2016년 4월 1일(금)에 출국했다. 아시아나 항공으로 김포-하네다공항을 이용했다. 하네다공항에는 튜터 이지은 씨가 마중을 나와 기숙사까지 동행해주었다. 그 다음 날이 “제미”라고 불리는 주기적으로 진행되는 대학원 연구실 세미나가 있었기에 입사를 맞췄어도 설렘과 긴장이 공존하는 심리상태이었다. 참고로 “제미”는 세미나의 독일어 발음인 “제미나”에서 온 것으로 알고 있다. Figure 1은 4월 2일 (토)에 “제미” 때문에 처음으로 동경대학교를 갔을 때 찍은 사진이다. 1800년대에 지어지며 지금까지 동경대학교의 랜드 마크로써 존재하여 수학여행으로 온 중·고등학생이나 외국인 관광객에게 단체사진 명장소를 제공하고 있다. Figure 2는 공과대학 제1호관이라고 불리는 공과대학 건물이다. 이 건물에는 건축과와 사회도시학과가 있다. 중앙에 큰 나무가 인상적이며 주말에는 강아지 산책이나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어 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풀린다. 그리고 바로 앞에 스타벅스도 있어서 (Figure 3) 창가에 앉아 그 풍경을 보는 것이 하나의 낙이었다. 그리고



Figure 3. 공과대학 앞 스타벅스

동경은 특히 서울과 달리 미세먼지가 없어서 날씨가 정말 좋은 날이 많다. 비록 햇빛이 세다는 단점이 있으나 건강상 해가 되지도 않고 오랜 시간을 맑은 하늘아래 있기 때문에 어떤 고민꺼리가 있더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서울대학교 관악 캠퍼스에서 느꼈던 그런 감정과는 확실히 달랐다. 나무, 평지, 맑은 하늘이 주는 자극은 지금 서울에 귀국해서도 생생하게 기억할 정도로 인상적이었다. 한 달에 두 번 오후 1시에 2주 간격으로 진행되는 “제미”에 참가하기 위해 연구실로 들어갔다. 나는 어렸을 때 일본에 살았기 때문에 언어적인 어려움은 없었기에 들어가서 자기소개를 하고 앞으로 이 연구실에서의 연구계획 등을 말하자 교수님이 건축과 수업을 수강하되 석사 과정 1학년 학생들과 열 부하 계산 프로그램 (VBA를 이용한 주택 에너지 요구량 계산 프로그램)개발을 교환학생 기간 동안 하도록 과제를 내주셨다. 이 때 나는 놀러 온 것이 아니고 여기서 확실하게 배우고 가야겠다는 다짐을 했다. Figure 4는 “제미”가 진행되는 교실과 아카시 교수님, 연구실 사람들이다. 5월 마감인 학술 논문 대회가 있어서 이날은 각자 자기 논문 진행에 대해 발표하고 교수님한테 크리틱을 받는 시간이었다. 이날은 중간에 5분 쉬고 오후 6시 반까지 진행되었다. 나는 마냥 앉아있었고 아직 피로가 덜 풀려서 더 피곤하게 느껴졌다. 기숙사로 돌아가서 수강신청을 하고 (Figure 5) 교환학생 기간 동안 해야 할 것을 정리하여 일찍 취침했다. 수



Figure 4. 제미 진행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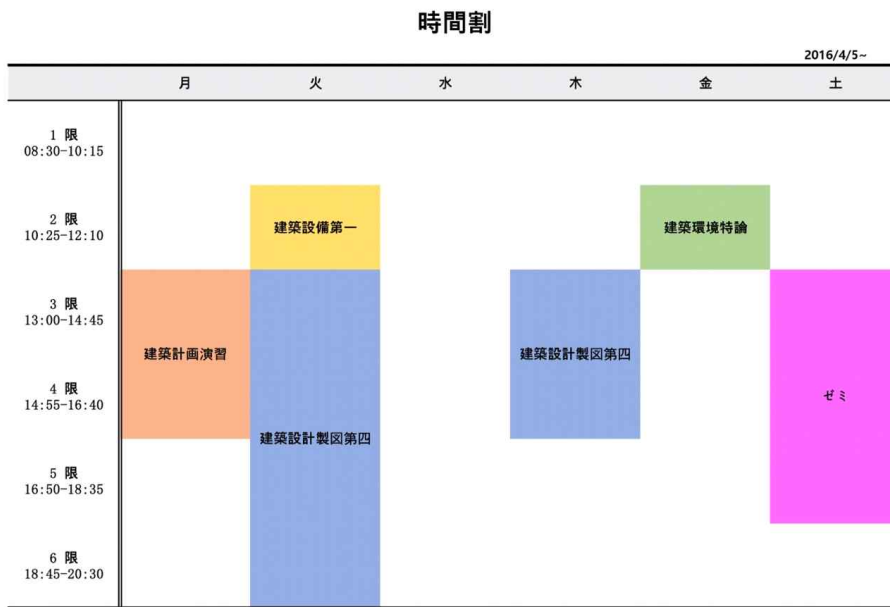


Figure 5. 동경대학교 봄학기 시간표

강 과목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월요일은 “건축계획연습”, 화요일은 “건축설비 제1(노란색)” 그리고 “건축설계제도 제4(파란색)”, 목요일은 “건축 환경 특론”, 토요일은 “제미”이다. 여윌롭게 보이면서도 적응하는 것까지 고려하면 생각보다 여윌롭지는 않았다. 거의 매일 학교로 나가 수업을 들으며 서울대에서의 학교생활과 별 다른없는 학교생활을 보냈다. 4월 12일 (화)에 입학식이 있었고 4월 27일 (수)에 연구실 개강파티가 있었다(Figure 6).



Figure 6. 연구실 개강 파티 모습

-5월-

5월이 되자 일본은 골든 위크라는 어린이 날 전후로 해서 거의 일주일간의 황금연휴가 있다. 그때에 맞춰서 한국에 잠시 왔다가 맛있는 집밥을 먹고 재충전을 하여싸. 다시 동경으로 돌아가 어느 정도 적응이 되어 동경대 생협 조합원에도 가입을 하고 학교 식당뿐만 아니라 학교 근처 외부 식당도 많이 알게 되었다. 서울대처럼 버스를 타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교문 앞에 큰 차도가 있어서 건너편에는 복사 집, 편의점, 식당, 도시락 집이 많았다. 외부 식당은 평균적으로 한 끼 800엔~1000엔 (우리나라 돈으로 약 만 원 이하) 정도 비용이 들고 학교식당은 350엔~600엔 (6000원 이하)정도이다. 어쨌든 서울대 학교식당보다 비쌌고 마음대로 리필도 안 됐다. 학교식당에 관해서 하나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다. 400엔을 내고 카레 덮밥 대자를 주문했다. 내 앞에 학생은 카레 덮밥 소자를 주문했다. 카레 국물을 떠주시는데 양이 같아서 “저...제 것 곱빼기인데요...국물 조금만 더 주시면 안 될까요...”라고 묻자, “우리도 이게 영업이라 그렇게는 못 하겠네요”라는 대답이 왔다. 무척 황당해서 밥이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다. 지금 생각하면 하나의 추억이지만 당시는 무엇인가 일본 국민의 성향이 들어나는 느낌이었다. 각 수업마다 발표니 중간고사니 일정이 다 있었고 5월 달도 빠르게 지나갔다.

-6월-

6월 달은 서울대에서는 종강에 기분이 들떠있는 시기지만 동경대에서는 중간발표가 밀려와 매주 발표했었다. 서울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누구보다 더 열심히 발표 준비도 하였고 최종 성적은 지금 시점에서는 모르나 열심히 했던 만큼 그날의 발표에 대해서는 교수님의 쓴 소리를 안 들었다. 하지만 내가 월등하게 잘 했다라고 하기 보다는 다른 동경대 학생들이 4학년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불성실한 수업태도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평가가 좋았던 것 같다. 어느 정도의 심각한 수업태도냐 하면 발표 당일 날에 발표를 안 하는 학생이 약 10%정도 되고 1/3이 지각은 한다. 또한 평소에는 통통 빈 교실이었으나 시험 때는 수강 인원이 이 정도로 많았나 싶을 정도로 교실이 꽉 찬다. 어떤 특정한 수업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거의 내가 수강했던 모든 수업에서 비슷한 수업태도를 볼 수 있었다. Figure 7은 “건축설비 제1”수업 모습이다. 이 수업의 기말시험 때는 학생 수가 배로 늘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학생들의 특징이 있다면 일본 문부과학상 유학



Figure 7. 건축설비 제1 수업 모습

생으로 외국인인데도 불구하고 학부 1학년 때부터 수학하는 학생들이 몇몇 있었다. 건축과에서는 한국인 학생 1명, 중국인 학생 5명이었다. Figure 8은 설계실 모습이다. 서울대 건축과 설계실



Figure 8. 건축학과 스튜디오 모습

(스튜디오)처럼 학년 별로 배정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넓은 교실에 한 군데만 있는 것 같다. 다들 마지막 설계 기말 과제에 몰두하고 있다.

-7월-

7월은 마지막 기말과제, 기말 발표, 기말 시험이 있었다. 기숙사는 8월 22일까지 있을 수 있으나 한국이 그리워 마지막 시험을 치고 최대한 빨리 귀국하려고 했기 때문에 나만 마음이 들떠있었다. (귀국날짜 7월 28일(목)) Figure 9는 나의 마지막 기말 발표 모습이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시원섭섭한 마음에 열심히 준비하였다. Figure 10은 연구실에서 송별회를 해줬을 때 모습이다. 위에서 학부생들이 불성실하다고 언급했으나 연구실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고 내가 서울대 연구실 생활을 안 해보았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으나 학부생과는 대조적으로 열심히 연구하고 나를 많이 챙겨주었다. 나도 기회가 되면 이번 지도교수 아래서 이 연구실 사람들과 같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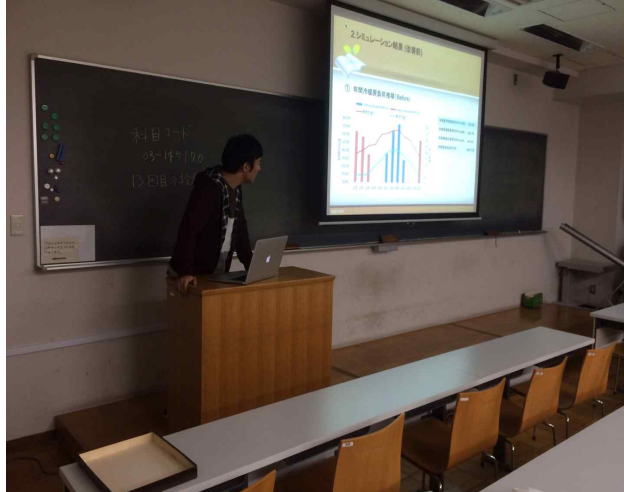


Figure 9. 내 기말 발표 모습



Figure 10. 연구실 송별회 때 모습

연구하고 싶은 욕망을 강하게 느꼈다. 7월이 마지막 달이라고 생각하니 시간이 금방 지나갔다. Figure 11은 아카시 랩 연구실 모습이다. 서울대 건축과 연구실과 비슷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 같다. 이 연구실 같은 경우는 세 연구실을 하나로 통합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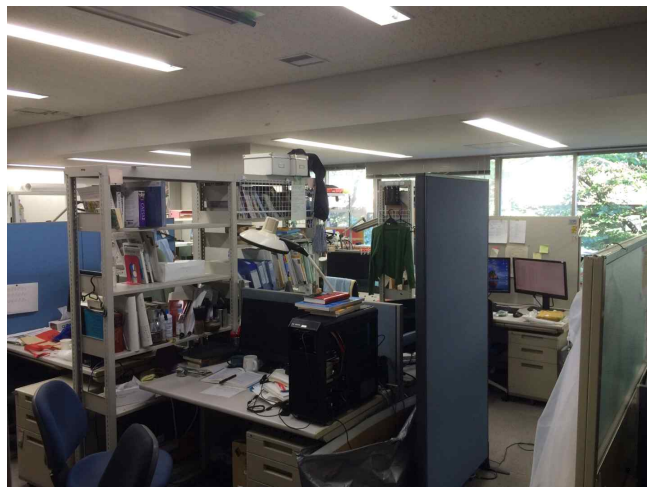


Figure 11. 아카시 랩 연구실 모습

2. 기숙사 생활

여기서는 기숙사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과 내가 실제로 겪은 일화 등을 소개하고자 한다. 앞으로 혹시나 동경대학교로 교환학생 신청하려고 하는 학생은 특히 기숙사에 관한 설명을 참고 해주면 좋겠다.



Figure 12. 기숙사 입구

Figure 12는 기숙사 입구이다. 기숙사 위치는 동경도 미타카시 신카와 6-22-20이고 장점은 압도적으로 기숙사비용이 저렴하다는 것이다. 다른 기숙사는 한 달에 4~5만엔 정도 하는 것에 비해 미카타 기숙사는 12,000엔 정도였으니 다른 데보다 1/4정도의 가격이다. 통학 시간은 기숙사 방문을 열어서 학교 연구실 문을 열 때까지 약 1시간 반 정도 소유된다. 통학 경로를 더 자세히 말하자면 기숙사를 나와 7분정도 걷고 버스를 탄다. 버스로 15분정도 가면 키치쥬지 역이라는 일본 JR 전철역이 나온다. 키치쥬지 역에서 중앙선을 타고 20분정도 가면 요츠야 역이라는 환승역이 나와 거기서 지상 전철을 내려 동경 메트로로 환승한다. 동경 메트로 남북선을 타서 동경대 앞 역까지 약 10분 소요되며 내려서 8분정도 걷고 연구실에 도착한다. 버스 기다리는 시간 그리고 전철 기다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1시간 반 정도 생각을 해놔야 지각을 안 한다. 교통비는 버스나 전철은 정기권을 끊을 수 있게 되어 있다. 하지만 대중교통이 민영화 되어있기 때문에 한국처럼 싸지도 않고 30분 이내 무료 환승과 같은 기능도 없다. 버스, JR 전철, 동경 메트로에 대해 모든 정기권을 구매해야 하고 버스는 3달에 2만엔, JR 전철과 동경메트로는 3달에 합해서 5만엔 정도 들었다. 처음에는 1시간이 걸리던 2시간이 걸리던 통학 시간을 유용하게 쓰고 영어단어나 영어 리스닝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다. 입사한지 2주 정도 지났을 때 계속 듣던 리스닝도 꾸준히 보던 영어단어 책도 어느 순간부터 안 보게 되고 안 듣게 되었다. 환승을 두 번 하고 또 걷고 하는 것이 계속되어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었던 것 같다. 기숙사 전체 분위기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았다. 학부생들은 자치회 등 귀찮은 활동이 없고 통금 같은 것도 없어서 그리고 경비원도 12시면 취침을 하기 때문에 규정은 금지되어 있으나 몇몇 몰래 친구들은 데려 오고 그랬던 것 같다. Figure 13은 내가 살던 기숙사 방이다.

다음은 식사에 대한 설명을 하겠다. 우선 기숙사에는 식당이 없고 각 방에 조금만한 주방이 달려 있는 게 다다. 자취를 안 할 사람은 밖에 나가서 사먹어야 할 텐데 주변에는 식당이 4개 정도 (초밥 집, 우동 집, 저가 패밀리 식당, 개인 식당, Figure 14,15 참조) 그리고 도시락 집이 있다.



Figure 13. 내가 살던 기숙사 방



Figure 14. 기숙사 앞에 초밥집 (예산: 2000엔 정도)



Figure 15. 개인 식당 메뉴 (950엔)

나머지는 전철역에 많다. 하지만 매일 기숙사 근처에서 식사를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버스타고 역까지 나가는 것도 은근 귀찮아 진다. 예를 들자면 서울대에서 점심을 먹으로 750타고 송실대 인근 식당에 가는 거리와 시간과 비슷하다. 그러니 처음에는 잘 챙겨 먹지만 점점 컵라면에 의존하게 되어 건강이 상한다. 반면, 학교 근처에 사는 학생들은 학교 식당 혹은 주변 식당이 많아 여러 음식을 챙겨먹을 수 있고 학교 식당 메뉴도 다양하기 때문에 한 끼를 잘 먹을 수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가급적 학교 근처에 사는 것을 추천한다.

다시 기숙사에 대한 장단점을 정리 하겠다. 장점: 기숙사 비용이 저렴하다.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다. 산책할 곳이 많다. 시립 도서관이 인근에 몇 군데 있기 때문에 그 지역 문화를 접할 수 있다. 단점: 지속적인 등하교가 만성 피로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밥을 챙겨 먹기가 힘들다. 바퀴벌레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다 (내 방은 한 번도 안 나왔다. 아마도 음식을 안 해 먹어서 그런 것 같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으며 이상한 사람이 기숙사에 침범할 수도 있다 (여성층은 3층이지만 주의). 앞으로 동경대학교 교환 학생 프로그램을 준비 하고자 하는 학생은 이런 점들에 유의하면 좋겠다. 참고로 가장 좋다고 소문 난 기숙사는 “오이와케” 기숙사이다.

3. 느낀 점

교환학생을 통해 다른 학생들은 언어를 익히거나 그 나라의 문화를 접하는 데에 활용을 하지만 나는 일단 언어가 되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과는 달랐다. 나 같은 경우는 동경대에서 얼마나 적응을 잘 하고 내 공부를 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췄다. 일본 문화를 즐긴다고 친구들과 신주쿠에 나가서 문화 적응을 하는 것도 좋지만 나는 한국 최고 대학과 일본 최고 대학을 비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여 술은 거의 연구실 행사 때만 마셨다. 이왕 선발된 것 그 대학의 학생들과 어울리며 어떤 연구를 하는지 내가 서울대에 돌아가서 어떤 마음가짐을 해야 될지 느끼게 해준 것 같다. 앞으로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신청할 사람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교환학생이란 놀러가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러 간다는 강한 자부심을 가지며 외국 대학에 수학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기간은 되도록 1년 다녀오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물론 서울대 졸업이 늦어지거나 4학년 때 졸업 사진을 동기들과 함께 못 찍을 수도 있지만 내 경험으로 6개월은 너무 짧은 것 같다.

마지막으로 제가 해외에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속에서 배움을 찾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과 동시에 금전적 지원까지 아끼지 않으신 공과대학 대외협력본부 김희선 선생님을 비롯한 학과 사무실 선생님 그리고 저희 서울대학교 건축과 선배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Figure 16. 기숙사 앞에 벚꽃 나무 (4월)